

# 3세에서 8세 아동의 용언 발달 연구

최은아\* 신지영\*\* 김수진\*

\*나사렛대학교 재활복지대학원 언어치료학과,

\*\*고려대학교 국어국문학과

## A Study on the Development of Inflected Words of Korean based on the analysis of 3 to 8 year-old Children's speech

Eunah Choi\* Jiyoung Shin\*\* Soojin Kim\*

\*Department of Communication Disorders, Korea Nazarene Univ.

\*\*Department of Linguistics and Literature, Korea Univ.

eunah-choi@hanmail.net, soojin-marianne@hanmail.net, shinjy@korea.ac.kr

### Abstract

The aim of this paper is to investigate the development of inflected words of Korean based on the analysis of 3 to 8 year-old children's spontaneous speech. For this purpose, the authors transcribe the spontaneous speech of 10 Korean children for each age and classified inflected word. The result of the analysis is as follows : ① In the verbs simple words are occupied 62%, derivative words 18% and complex words 20%. In the adjectives simple words are 82%, derivative words 7% and complex words 11%. ② The children's getting older, derivative and complex words are increased, in spite of simple words are reduced. ③ 4 year-old children get to start the ability of word formation and then since the children become 8 year-old, the children complete that ability almost all we think.

### 1. 서론

음운 발달이나 의미 관계의 발달과 더불어 어휘발달은 아동의 언어발달 지표를 설정하는데 아주 중요한 요소일 뿐 아니라 언어 진단 및 언어치료 목표설정에도 있어서도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Clark(1973)에 의하면 아동들은 언어 습득에 있어서 의사소통 면에서 기능이 높은 것이나 경험과 관련된 것, 또는 직접 관찰할 수

있거나 조작이 가능한 어휘를 우선 습득한다고 한다.

대부분의 특수교육 및 언어치료 대상 아동들은 또래의 언어와 비교해야 하므로 같은 맥락에서 초기 연령부터 학령기에 이르는 연구결과와 비교할 필요가 있는데 어휘발달에 대한 많은 연구들(이승환, 배소영, 1988; 이인섭, 1986; 이현정, 박창일, 박은숙, 김향희, 2003; 조명한, 1982; 최은희, 2000)이 거의 초기발달만 다루거나 성인언어와 문어가 기준이기 때문에 아동의 구어 진단 및 치료에 활용도가 낮다. 외국의 연구들도 전반적인 언어발달의 이해를 위해서 많은 도움이 되는 것은 사실이지만 우리말과는 차이가 있어 적용하는데 한계가 있다(Benedict, 1979; Brown, 1973; Tomasello, 1992, Owens, 2002).<sup>2)</sup>

표준 국어문법(남기심, 고영근)을 기준으로 우리말 어휘를 문장성분에 따라 체언, 용언, 수식언, 관계언, 독립언 등으로 나눌 수 있는데 이 중 의사소통에서 의미 전달에 핵심적인 역할을 담당하는 것은 체언, 용언, 수식언이라 할 수 있다.

3세에서 8세까지 아동들의 자발화를 통해 체언, 용언, 수식언의 비중을 살펴본 연구결과(최은아·김수진·신지영, 미간행)에 의하면 3세부터 8세까지 각각 아동 발화에서 체언의 비중이 약 60%, 용언이 약 30%, 수식언이 약 10%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 이 논문은 2002년도 한국학술진흥재단의 지원에 의하여 연구되었음(KRF-2002-003-A00096).

용언은 자발화 내용어 중 30%의 비중을 차지하고는 있지만 문장을 구성하는데 있어서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구조로 언어발달에 따라 발화 당 용언의 산출율이 증가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영어권에서 연구된 결과이기도 하지만 3세 아동들이 사용하는 문장의 85%가 동사를 포함할 정도로 아동들은 동사중심의 문장을 많이 쓰기 시작한다(Menyuk, 1995). 3세에서 6세까지 우리나라 아동을 대상으로 한 연령별 발화 당 동사 어휘의 산출율을 살펴보면, 3세 아동은 발화 당 0.60회, 4세 아동은 발화 당 0.65회, 5세 아동은 발화 당 0.71회, 6세 아동은 발화 당 0.85회를 사용하여, 연령이 증가함에 따라 발화 당 동사 산출율이 증가하는 것으로 높은 연령의 아동일수록 동사가 포함된 완성된 문장을 사용하는 비율이 높다는 것을 보여주는 결과이다(조진숙, 2003).

우리말에서 용언을 담당하는 품사는 동사와 형용사이다. 이들 동사와 형용사는 단어구성에 따라 단일어, 파생어, 합성어로 구분할 수 있다(시정곤, 1994). 언어의 우열을 가르는 기준이 너무 다양하여 정확하게 가르는 것은 어려운 일이지만 그 기준 가운데 하나는 조어력 즉 단어를 만드는 능력이라고 할 수 있다. 아동들 역시 발달과정에서 낱개의 형태소들을 합쳐서 혹은 변형하여 문법과 의미적 맥락에 맞게 혹은 틀리게 사용하는 것을 관찰할 수 있다. 아동들이 파생어나 합성어를 배우는 과정이 전체 혹은 부분으로 학습되는 것이라는 논란은 계속되고 있지만 학습과정에 대한 이러한 논란에도 불구하고 동일한 입장은 연령이 증가할수록 그리고 어휘가 많아질수록 파생어와 합성어의 유형수가 증가할 것이라는 가정이다.

본 논문은 어휘가 폭발적으로 증가하는 시기로부터 학령기 초기에 이르는 아동의 언어발달시기에 주요 내용어의 단어 짜임새, 즉 파생어, 합성어의 비중이 단일어와 비교하여 어떻게 발달하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 II. 연구방법

본 연구의 대상 아동은 만 3세에서 8세의 아동 중 표준어를 사용하며 서울, 천안, 대전 지역에 거주하는 정상 아동을 연령별로 10명씩 총 60명이다. 각 아동들은 부모 보고에 의해 아동들이 특이한 사항 - 발달 지체나 조음 상의 문제 등을 보이지 않는 것을 확인하고 학령기 이전 아동은 간단한 발달선별 검사문항을 통과한 경우에만 발화를 수집하였다.

분석한 말 자료는 아동의 자발화를 수집한 것으로 하였는데 자발화 유도를 위한 과제는 Owens(2002)와 김영태(2002)를 참고하였다. 자발화 수집을 위해서 학령

전기 아동과는 주로 소꿉놀이와 그림책 보며 말하기, 자신의 사진 설명해 주기 등을 사용했으며 학령기 아동과는 책 읽고 아동이 자신의 언어로 재구성하여 말해주기와 소꿉놀이, 아동의 관심사 등으로 자발화를 이끌어 내었다.

아동의 자발화를 수집하는 과정을 비디오로 녹화하여 언어치료를 전공으로 하는 학생들이 전사하였다. 자발화의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자발화 수집하는 과정에 대해 학생들에게 사전 교육을 실시하였으며 모두가 같은 과정과 내용으로 수집하였다. 전사한 내용도 대학원생들이 여러 차례 서로 바꾸어 확인함으로써 신뢰도를 높였다.

만 3세에서 8세 아동 각각 10명씩의 자발화를 수집하여 각 아동의 자발화 중 250발화 정도를 선택하여 분석하는데 사용하였다. 선택된 발화들은 형태소 분석기(지능형 형태소 분석기, 21세기 세종계획 2001)를 이용하여 각각의 형태소로 분석한 후 연령별로 아동들의 단어 수와 유형, 연령 증가에 따른 어휘 증가 정도 등을 분석하였다. 표준국어문법(남기심·고영근)의 단어 분류를 기준으로 동사와 형용사를 단일어, 파생어, 합성어로 나누었으며 동사의 경우 '돌려보내다'와 같이 파생이 된 후 다시 합성어로 된 경우와 '길들이다', '물들이다', '잡아먹히다' 등과 같이 합성이 먼저 된 후 다시 파생어로 된 경우가 있었는데 이런 경우에는 나중의 조건을 우선으로 하여 '돌려보내다'는 합성어로, '길들이다', '물들이다', '잡아먹히다' 등은 파생어로 구분하였다.

## III. 결과

### 1. 동사

#### 가. 연령과 단어 짜임새별 동사 유형수의 발달

동사에서 단일어, 파생어, 합성어의 분포를 보면 단일어는 3세와 4세에서 각각 68%와 64%로 다른 연령에 비해 많은 비중을 보이는 반면에 파생어는 4세 이후에 18% 이상의 많은 비중을 보인다. 또한, 합성어는 5세 이상에서 20% 이상의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표 1> 참조). 즉, 3세에서도 단일어는 이미 많이 습득하고 있으나 파생어와 합성어를 구성하는 조어력은 아직 갖추어지지 않았으며 파생어와 합성어를 구성하는 조어력은 4세 이후에 크게 발달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표 1> 동사의 단어 짜임새 별 비중(%)과 유형수(단위:개)

		단일어	파생어	합성어
3세	분포	68.1	13.3	18.6
	단어수	154	30	42
4세	분포	64.7	18.2	17.1
	단어수	167	47	44
5세	분포	59.5	20.4	20.1
	단어수	184	63	62
6세	분포	60.1	19.8	20.1
	단어수	203	67	68
7세	분포	60.1	17.9	22.1
	단어수	204	61	75
8세	분포	60.7	19.2	20.1
	단어수	247	78	8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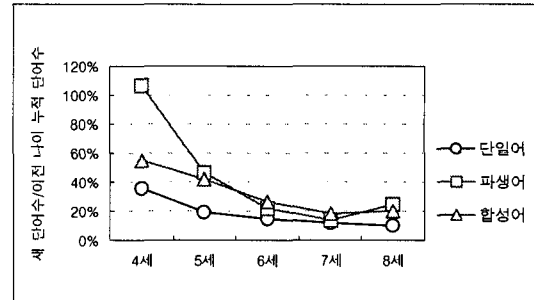
새로 출현한 동사의 단어 유형수를 살펴보면 단일어는 4세 이후 계속 감소하고 있는 반면에 파생어는 4세와 8세와 합성어는 5세와 8세 증가하고 있다(<표 2> 참조). 이는 누적 단어수에 대한 새 단어수의 비율로 구한 동사의 어휘 증가율에서 파생어와 합성어의 증가율이 상승한 것을 통해서도 알 수 있다(<그림 1> 참조).

<표 2> 새로 출현한 동사의 단어 유형수와 누적단어 유형수(단위: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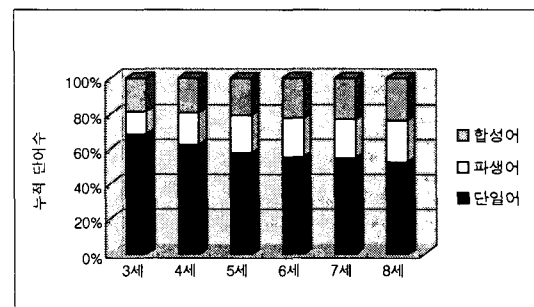
		단일어	파생어	합성어
3세	새 단어	154	30	42
	누적단어	154	30	42
4세	새 단어	54	32	23
	누적단어	208	62	65
5세	새 단어	40	29	27
	누적단어	248	91	92
6세	새 단어	37	20	24
	누적단어	285	111	116
7세	새 단어	34	15	21
	누적단어	319	126	137
8세	새 단어	31	31	27
	누적단어	350	157	164

누적 단어수로 환산하여 연령별 단일어, 파생어, 합성어의 단어분포를 보면 연령이 증가함에 따라 단일어의 분포는 68%에서 52%로 계속 감소하는 반면에 파생어는 각각 13%에서 23%로, 합성어는 19%에서 24%로 증가하고 있음을 볼 수 있다(<그림 2> 참조). 이는 연령이 증가하면서 새로운 단어 습득뿐만 아니라 이미 알고 있는 기존의 단어들을 이용하는 파생법과 합성법

을 습득하여 8세에 이르면 성인 수준에 이르는 파생법과 합성법을 터득하는 것으로 파악된다.



<그림 1> 동사의 어휘증가율



<그림 2> 동사의 누적 단어 분포

나. 파생어와 합성어의 고빈도 어휘특성

전체 아동의 용언을 분석 한 결과 아동들이 가장 많이 사용한 용언은 '-이다'로 전체 연령층에서 총 2536회 사용하였으며 동사 중 단일어에서는 '하다'가 1097회, 파생어에서는 '좋아하다'가 144회, 합성어에서는 '나오다'가 157회로 가장 많이 사용되었다.

3세 아동이 사용하는 동사 파생어의 대부분은 명사나 한자어에 '-하다'를 붙여 동사로 파생하는 것과 피동의 '-리-', 사동의 '-이-'를 사용한 파생어가 주를 이룬다. 하지만 8세 이르면 사동과 피동 접사가 모두 나타나 제한 없이 사용하고 있으며 '휘두르다'와 같이 접두사를 사용한 파생어도 8세에 나타나고 있다. 파생어 중 3세부터 출현하면서 15회 이상 높은 빈도를 보이는 것으로는 '걸리다', '구하다', '돌리다', '떨어지다', '말하다', '보이다', '붙이다', '열리다', '웃기다', '일하다', '치우다' 등이 있다.

합성어를 살펴보면 3세에는 '걸어가다'와 같은 '동사와 동사의 결합을 주로 보이다가 연령이 증가함에 따라 '잠들다'와 같은 '주어와 서술어' 관계, '눅슬다'와 같은 '목적어와 서술어'의 관계, '가만있다'와 같은 '부사어와 서술어'의 관계 등 다양한 형태의 합성어들이 많이 나타남을 볼 수 있다. 합성어에서 3세에서부터 출현하며 10회 이상 사용된 것으로는 '가져오다', '갈아입다', '끝나다', '나가다', '나오다', '날아가다', '내려가다',

‘도망가다’, ‘들어가다’, ‘들어오다’, ‘따라오다’, ‘올라가다’, ‘잡자다’, ‘잡아가다’, ‘잡아먹다’, ‘쉬하다’, ‘찾아오다’, ‘잘하다’, ‘화나다’, ‘힘들다’ 등이 있다.

단일어, 파생어, 합성어에서 3세부터 출현하여 높은 빈도를 보이는 것은 아동이 습득하는 기본 어휘라고 볼 수 있으므로 언어치료의 측면에서 먼저 치료를 위해 선택해야 하는 목록이기도 하다.

## 2. 형용사

### 가. 연령과 단어구조별 형용사 유형수의 발달

형용사의 경우도 단일어의 비중은 82%(75% ~ 84.3%)이며 파생어와 합성어의 비중은 각각 7.4%(5.3% ~ 11.1%)와 11%(4.9% ~ 16.7%)로 보통명사와 비슷한 경향을 보인다. 하지만 형용사는 양적 측면에서 동사에 비해 단어 수가 매우 적으며 파생어나 합성어의 경우도 드물었다.

<표 3> 형용사의 단어구조별 비중(%)과 단어 유형수 (단위:개)

		단일어	파생어	합성어
3세	분포	83.0	5.7	11.3
	단어수	44	3	6
4세	분포	84.2	5.3	10.5
	단어수	48	3	6
5세	분포	84.3	7.1	8.6
	단어수	59	5	6
6세	분포	80.3	7.0	12.7
	단어수	57	5	9
7세	분포	75.0	8.3	16.7
	단어수	54	6	12
8세	분포	84.0	11.1	4.9
	단어수	68	9	4

형용사는 새 단어 증가도 많이 나타나지 않고 오히려 단일어는 새로 습득한 어휘수가 계속 줄다가 8세에 조금 증가하는 현상을 보이며 파생어도 7세와 8세에 조금 증가한다. 합성어의 경우 8세에는 새로 추가된 것이 하나도 없었다(<표 4> 참조). 누적 단어수와 새 단어수의 비율로 살펴 본 어휘 증가율을 보면 단일어는 계속 감소하는 추세이며 파생어는 5세에서 큰 폭으로 감소했다가 6세에서 8세에 이르기까지는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합성어의 경우에는 파생어와 반대 현상을 보이는데 5세에서 6세까지는 증가하다가 7세에서 8세에 이르면서는 급격하게 하락하고 있다.

<표 4> 새로 출현한 형용사의 단어 유형수와 누적 단어 유형수(단위:개)

		단일어	파생어	합성어
3세	새 단어	44	3	6
	누적 단어	44	3	6
4세	새 단어	20	3	1
	누적 단어	64	6	7
5세	새 단어	12	2	1
	누적 단어	79	8	8
6세	새 단어	12	2	3
	누적 단어	91	10	11
7세	새 단어	5	4	4
	누적 단어	96	14	15
8세	새 단어	10	6	0
	누적 단어	106	20	15

형용사도 동사와 마찬가지로 단일어의 습득은 점차 줄어드는 동시에 파생법과 합성법에 의한 단어 형성이 증가하는 경향을 띠는 것으로 파악된다.

### 나. 파생어와 합성어의 고빈도 어휘특성

형용사에서 3세 아동들은 파생어의 개념을 인지하지 못한 채 ‘차갑다’, ‘새롭다’ 등의 파생어를 습득하여 사용하다가 7세나 8세 정도가 되면 상태나 모양을 나타내는 어휘와 ‘-하다’가 결합하여 파생된 ‘이만하다’, ‘빼죽하다’, ‘상하다’, ‘조용하다’ 등이 많이 나타난다.

형용사의 단일어에서 ‘있다’가 1031회로 가장 많이 사용되었으며 45회 이상 사용한 단일어로는 ‘좋다’, ‘크다’, ‘많다’, ‘있다’, ‘작다’, ‘없다’, ‘예쁘다’, ‘나쁘다’, ‘싫다’, ‘빨갳다’, ‘갈다’, ‘그렇다’, ‘무섭다’ 등이 있으며 파생어에서는 ‘차갑다’가, 합성어에서는 ‘맛있다’, ‘배고프다’, ‘사이좋다’, ‘안되다’, ‘재미있다’ 등이 있는데 이 어휘들은 모두 3세에서부터 출현하여 모두 10회 이상 사용하였다.

## IV. 결론

본 연구에서는 3세에서 8세까지의 아동의 자발화 분석을 중심으로 동사와 형용사의 유형과 사용빈도, 증가율, 고빈도 어휘특성을 살펴보았다.

용언 중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동사의 경우 단일어, 파생어, 합성어의 분포를 보면 단일어는 3세와 4세에서 비중을 많이 보이는 반면에 파생어는 4세 이후에 18% 이상의 많은 비중을 보인다. 또한, 합성어는 5세 이상에서 20% 이상의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즉, 4세 이후에 파생어와 합성어를 구성하는 조어력이 크게 발달하여 8세에 이르면 상당한 수준의 파생법과 합성법을 터득하는 것으로 파악된다.

### 참고문헌

- [1] 고영근, 남기심, *국어의 통사·의미론*, 탑출판사, 1991.
- [2] 고영근, 남기심, *표준국어문법*, 탑출판사, 1993.
- [3] 김영태, *아동언어장애의 진단 및 치료*, 학지사, 2002.
- [4] Menyuk, P., J. Liebergott and M. Schultz. *Early Language Development in Full-Term and Premature Infants*. Hillsdale, NJ: Lawrence Erlbaum Associates Pub, 1995.
- [5] 배소영, "정상아동과 정신지체아동의 의문사 이해 발달에 관한 일연구", 이화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1987a.
- [6] 배소영, "한국아동의 초기 낱말발달 및 표현진단: MCDI-K를 중심으로", *언어장애연구*, 언어장애연구모임, 1987b.
- [7] Benedict H., "Early lexical development: Comprehension and product", *Journal of Child language*, 21, pp.85-123, 1979
- [8] Brown R., "A first language: The early stage", Harvard University Press, 1973
- [9] 시정곤, *국어의 단어형성 원리*, 언어학연구12, 국학자료원, 1994.
- [10] Owens, R. E., *Language Development: An Introduction*, Allyn & Bacon, 2001.
- [11] 윤혜련, *정신지체아동과 정상아동의 관계낱말발달에 대한 비교연구*, 이화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1988.
- [12] 이윤경, 김영태, *단순언어장애 아동들의 낱말산출 능력: 명사와 동사를 중심으로*, *언어청각장애연구*, 한국 언어청각임상학회, 제8권 제1호, pp.1-19, 2003.
- [13] 이인섭, *한국아동의 언어발달: 단계별 위상*, 교문사, 1986.
- [14] 이현정, 박창일, 박은숙, 김향희, *아동의 구문발달에 따른 용언의 발달*, *언어청각장애연구*, 한국 언어청각임상학회, 제8권 제1호, pp.20-40, 2003.
- [15] 조명한, *한국아동의 언어획득연구: 책략모형*, 서울대학교 출판부, 1982.
- [16] 조영화, *아동의 피동, 사동 언어발달*, 중앙대 교육대학원 석사논문, 1991.
- [17] 조진숙, *3세에서 6세 아동의 발달에 따른 동사어휘특성 및 빈도연구*. 나사렛대학교 석사 학위논문. 2003.
- [18] 최은희, *한국 아동의 어휘발달연구: 13-30개월 아동을 대상으로*, 연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0.
- [19] Clark, E. V., What's in a word? On the child's acquisition of semantics in his first language, In T.E. Moore(Ed), *Cognitive development and the acquisition of language*, Academic Press, 1973.
- [20] Tomasello M., *First verbs: A case study of early grammatical development*, Cambridge University Press, 1992
- [21] 지능형 형태소 분석기, *21세기 세종계획 2001*